

## 대건회

### 대건회

에디슨 한인 천주교회의 대건회는 본당 형제들과 그들의 아내들로 구성된 평신도 단체 협의회 중 친목 단체로, 순교 성인인 김대건 신부님의 성덕을 본받아 본당 안팎의 봉사활동 및 회원 상호편 간의 친목과 화합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0세에서 58세 사이의 형제님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모든 성당 내의 굿은 일, 안 보이는 곳에서의 봉사와 친교의 중심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 하고 있는 친교단체입니다.

매년 본당에서 주최하는 골프대회 진행과 봉사를 맡아 신자들간의 친교와 도네이션의 하모니를 만들고 또한 가을 바자회 그리고 부활미사 후 행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또 기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 김대건 신부님

“부디 환난에 놀려 항복하는 마음으로 사주구령사(事主救靈事)에 물러나지 말고 오히려 지나간 성인 성녀의 자취를 만만 수치하여 성교회 영광을 더고 천주의 착실한 군사와 의자가 됨을 증거하고 비록 너희 몸은 여럿이나 마음으로는 한사람이 되어 사랑을 잊지 말고 서로 참아 돌보고 불쌍히 여기며, 저의 공령 하실때를 기다려라.”  
(김대건 신부님의 마지막 편지 중에서..)



### 대건회 가정 목록

- 21/22 대건회장, 박락준 베드로 이서형 요안나
- 21/22 총무, 이승권 요한, 이혜정 로사
- 허영 요한, 이수미 데레사
- 이호용 프란치스코, 최정원 레지나
- 문형곤, Yingling Chen
- 우성현 스테파노, 임영진 데레사
- 오용운 토마스, 오은주 로사
- 정진오 프란치스코, 유미선 클라라
- 이 리차드, 이소희 사라
- 함철주 안드레아, 고성희 아니시아
- 박정훈 베드로, 황선주 요셉이나



연중  
제24주일

2022년  
9월 11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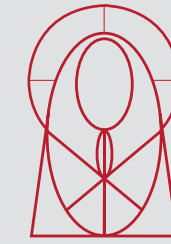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10AM~3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밀레 <만종> 1857-1859  
`오르세 미술관

### < 이번 주 전례안내 >

- # 제 1독서 요엘 예언서 2,22-24.26 ㄱㄴㄷ
- # 화답송 시편 67(66),2와 4 ㄱ.5ㄷ과 6.7-8(㉞ 7)  
◎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 # 제2독서 요한묵시록 14,13-16
- # 복음 환호송 시편 126(125),6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신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 복음 루카 12,15-21  
(사람의 생명은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 # 성가번호 입당 228      봉헌 218      성체 497      파견 416

## 성당 소식

### ✿ 미사지향 (연미사)

- 추성태(바오로) - 채희백(바오로) 가족, 먼로 구역
- 이택면(예로니모) 신부님 - 이윤석(리처드) 가족, 최 헬레나, 안을봉(요셉) 가족, 손종철(안드레아)가족, 김영철(안토니오) 가족
- 최복자(레지나)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김상기(요셉) - 가족
- 이동기 - 가족
- 이상규 - 가족
- 이종우(도밍고), 정숙림(막달레나) - 가족
- 김명균(미카엘) - 가족
- 박현진(스테파노) - 장수지 (아폴로니아)
- 김건마(요셉) - 김중화(아가다)

### ✿ 미사지향 (생미사)

- 염은미(클라라) - 가족
- 이석종(스테파노) - 박재영(요아킴)
- 하건철(안토니오) - 임 안나
- 하용무(데레사) - 임 안나
- 정영철(프란치스코) - 이대우(베드로) 가족, 우 아이린
- 광 유리안나 - 손종철(안드레아) 가족, 한상철(빈첸시오)
- 김정민(말셀리노) 가정 - 가족
- 이혜숙 - 이순재(마리아)
- 백영숙(헬레나) - 광 엘리자벳
- Vira - 한상철(빈첸시오)
- 오현주(요한), 오옥자(데레사) - 채희백(바오로) 가족
- 골프대회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 기획분과

###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 헌금 .....\$1,022
- 교무금.....\$2,620
- 박재영(9-10)      손종철(7-9)      박락준(9)
- 백영숙(9-12)      양영길(9-10)      한상철(9-10)
- 채희백(9-10)      최영욱(9)      염기선(8)
- 최율리오(5-6)      백상현(9)      김성일(8-9)
- 감사헌금..... 익명 (\$50)

### ✿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 염은미(클라라)

### ✿ 지난 9월 5일 에디슨 한인성당 성모공원 조성기금 마련 골프대회가 많은 분들의 성원과 지지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4,000 기금이 마련되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채희백(\$500), 황태진(\$300), 김도영(현대정비)(\$300), 변태룡(\$500), 이호용(\$100), 오용운(Vesta-Oh LLC)(\$600), 손흥구(\$50), 우재준(New Image Dental)(\$300), 김치하나(\$300), 준(원출)풀턴 부동산(\$500), 김진(\$100), 백용숙(\$160), 안을봉(\$100), 육순재(골프공 20box,\$600 상당)

### ✿ 2차 헌금

- 9월 11일 : Peter's Pence (교황님 세계 선교사업 지원)
- 9월 18일: 유틸리티

### ✿ 미사 시작 10분전 순교자 성월 기도와 삼종기도를 함께 바칩니다.

### ✿ 9월 매일미사책을 신청하신 분들은 성당 입구에서 사무장에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 예비자 교리반 모집

- 2022년 7월부터 예비자 교리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바랍니다.

### ✿ 에디슨 구역 모임

- 일시 및 장소: 9월 11일 (주일) 미사 후 친교실

### ✿ 전례회의

- 일시 및 장소: 9월 11일 (주일) 미사 후 성당

### ✿ 꾸리아 월례 회의

- 일시 및 장소: 9월 11일 (주일) 미사 후 친교실

### ✿ 사목 회의

- 일시 및 장소: 9월 18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 주일학교 기금 마련 음료판매

- 일시 및 장소: 9월 18일 (주일) 미사 후 성당입구
-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 주일학교 학생 모집

- 주일학교가 9월 18일에 시작합니다.
- 대상: K ~ 8 grade학생
- 접수비는 \$65/학생
- 신청은 OLM 성당 홈페이지에 있는 링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청소년분과장 김수완 세실리아 suwankim@gmail.com

### ✿ Parish Picnic (본당의 날 행사)

- 일시: 10월 2일 (주일) 오전 11시부터
- 장소: 성당 뒷 주차장
- 내용: 오전 10시,한/미 공동체 합동 미사  
오전 11시 음식 나눔 및 친교  
오후 1시 반려동물 축복식

### ✿ 로사리오 성월 성모님 성지 순례

- 일시: 10월 11일(화) 오전 8시 성당 출발, 11시 30분 미사, 오후5시 성당도착
- 성지: 체스토호바의 성모님 (검은 성모 성화상) 펜실베니아 주
- 주관: 꾸리아
- 대상: 모든 교우(선착순50명)
- 참가비: \$65 (아침, 점심, 버스비, 성지 봉헌금)
- 신청: 꾸리아 부단장 최현지(안토니아), 회계 한지혜(크리스티나), 사무장

### ✿ 8/28 선교 기금 모금에 썸머셋 구역에서 \$200 기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말씀번역

### ✿ 제 1독서 요엘 예언서2,22-24.26ㄱㄴㄷ

들집승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광야의 풀밭이 푸르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도 풍성한 결실을 내리라. 시온의 자손들아, 주 너희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주님이 너희에게 정의에 따라 가을비를 내려 주었다. 주님은 너희에게 비를 쏟아 준다. 이전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쏟아 준다. 타작마당은 곡식으로 가득하고 확마다 햇포도주와 햇기름이 넘쳐흐르리라. 너희는 한껏 배불리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 하느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 제 2독서 요한 묵시록14,13-16히브리서

나 요한은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이들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하고 하늘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고생 끝에 이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내가 또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앉아 계셨는데,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대어 수확을 시작하십시오. 땅의 곡식이 무르익어 수확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땅 위로 낫을 휘두르시어 땅의 곡식을 수확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 루카 복음 12,15-21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 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곳간들을 헐어 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 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 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이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신앙상식

### ✿ 순교자 성월 이야기 1

매년 9월은 순교자 성월입니다. 피를 흘리며 죽음 앞에서도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증거했던 한국의 많은 순교 성인 복자들 그리고 알려 지지 않은 많은 순교 선혈을 기억하는 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처음부터 피의 순교로 시작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외아드님 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영원한지 알려 주셨습니다. 이 순교자 성월이 우리 모두 안에 흐르는 믿음의 피가 얼마나 진하고 또 얼마나 행복한 신앙인의 삶으로 이끄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래 봅니다.

지난 8월 27일에는 바티칸 교황청에서 20명의 새로운 주교님들이 추기경에 임명 되는 서임식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고국인 한국에서도 한국 교회 역사상 4번째 추기경이 이날 탄생했습니다. 유홍식 라자로 추기경은 작년 2021년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에 임명되면서, 전 세계 모든 성직자들의 삶과 더불어 사제가 되려는 신학생들의 삶을 챙기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달 추기경에 임명 되며, “교회를 위하여 죽을 각오로 살겠습니다.” 라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의 추기경이 입는 옷의 색깔은 붉은 색 입니다. 바로 피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추기경의 자리는 교황 다음으로 높은 교회의 직무 사제직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높아 질 수록 더 낮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사제의 정신은 더 깊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낮아지려고 하면, 하느님의 은총과 영광 안에서 더 높아지는 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모습입니다. 추기경의 의복이 붉은 색인 이유도 결국, 세상을 향한 사랑과 평화를 위하여 피를 흘릴 각오, 희생과 죽음으로 살 각오와 마음을 닦은 색이기 때문입니다. 곧, 순교자들이 흘렸던 피의 색이 추기경의 의복 색인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혼의 의복도 붉은 색이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붉은 피 만큼이나 오히려 그 피 보다 더 짙은 붉은 믿음의 피로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살아 갔으면 합니다. 순교 성월에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 깊어 지기를 바라며 한 주간을 살아 갑시다.

아멘.

